

‘비빔밥’ 유네스코 등재 위한 전략 모색

전주시, ‘로컬식품·식문화산업 진흥포럼’ 갖고 고부가가치화 전략·미래 방향 집중 논의

대한민국 대표 미식도시인 전주시가 비빔밥의 유네스코 등재 등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전북대학교 JENU인터네셔널센터와 왕의지밀에서 전문가와 연구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빔밥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전략 등을 함께 모색하는 ‘2024년도 로컬식품 및 식문화산업 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이 주최하고, K-Food 연구센터와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전주비빔밥의 글로벌화와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은 비빔밥의 유네스코 등재 전

라뿐만 아니라 로컬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이틀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비빔밥을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미래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로컬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수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로컬푸드의 현황과 고부가가치화 전략, 바이오 소재 상품화 현황과 전망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석홍 우석대학교 교수와 천현수 휴먼에노스 대표, 이은미 전북바이옴융합산업진흥원장은 각각 ‘로컬푸드의 현황과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로컬푸드기반 바이오 소재 상품화 현황과 전망’,

‘지역식품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주제로 로컬푸드의 산업적 가치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은 ‘로컬푸드(비빔밥)의 글로벌화 전략’을 주제로 비빔밥의 인문학적 고찰과 자연과학적 접근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백상호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세션에서는 노정욱 전북대학교 교수와 차경희 전주대학교 교수, 차연수 전북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특히 포럼 둘째 날에는 함한희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핵심 세션인 ‘비빔밥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전략’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정혜경 전북대학교 교수는 비빔밥의 문화적 가치와 세계화를 위한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 교수는 “비빔밥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대표하는 상징적 요리”라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포럼은 비빔밥의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지역 음식의 글로벌화 및 로컬 식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는 비빔밥의 유네스코 등재 등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민 위한 ‘모두의 OST’

전주시립교향악단,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공연 진행

전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성기선)이 전주시민들이 신성한 곡들을 연주하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시민들이 신성한 영화 OST곡을 영상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모두의 OST’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을 위해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지난달 시민들에게 듣고 싶은 OST곡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한 곡을 공연 프로그램에 넣어 기획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 주요 장면들이 담긴 영상이 공연 전 상영되며, △인디애나 존스 △벤허 △라라랜드 △선들러 리스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명작 영화의 OST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공연 입장권은 1만 원(1층)과 7000원(2층)이며, 나루컬처에서 예매할 수 있다. 학생과 예술인페스

카드 소지자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박현영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장은 “이번 공연은 시민들이 직접 선곡에 참여해 기획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공연이 될 것”이라며 “친숙한 영화 멜로디가 다양한 세대와 음악적 취향을 아우르고 관객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에서 놀며 생태적 가치 배워요”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서신·중앙초 학생 대상 전주천 생태전환 마을교육과정 운영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허대중)는 지난 11일 생태교육센터 숲터와 함께 전주중앙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주천 생태전환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이날 직접 전주천으로 나가 물고기를 채집하고, 수서곤충과 습지 식물을 관찰하는 체험형 탐구학습에 참여했다.

전주천은 지역주민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중요한 도시하천으로, 전주천 생태전환 교육과정은 전주천의 생태적 가치와 사회적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에게 물속 생물과 자연환경을 직접 관찰하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교육의 주요 목표는 탐구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생태교육센터 숲터와 함께 전주중앙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주천 생태전환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학습을 통해 사회참여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학생들은 전주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는 지난달 19일에도 전주서신초 학생들과 함께 전주천에서 마을생태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강사를 양성하고, 학교 교과를 넘어선 자기 주도적 생명·생태교육이 꾸준히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기후변화와 하천 생태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대중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은 “전주천 생태전환 마을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전주천의 생태적 가치와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을 높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중인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산하 교육 중간지원조직으로, 현재 △지역 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마을교육 활성화 △지역 교육자원과 학교 수업 간 연계 지원 등 전주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주거 취약가구 집수리 봉사 펼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전북백인회, 환경개선 지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가 지난 8~10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거주하는 주거사각지대의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지역봉사단체인 전북백인회(회장 이희철)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주거복지센터는 대상 가구는 3인 가구로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며, 40년이 넘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전북백인회에서 기탁한 후원금 1,000만 원과 백인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대

상가구의 화장실 배관공사, 변기 설치, 바닥타일 공사 등 보수 공사를 3일간 진행했다.

“일인은 백인을 위해 백인은 일인을 위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전북백인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기부와 후원의 밤, 기부 장터 운영으로 귀중한 주거환경개선 1,000만 원 후원금을 마련했다.

전북백인회 이희철 회장은 “전북백인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각 분야 자영업자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앞으로도 끊임없는 봉사과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 인후2동 통장협의회,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 나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통장협의회(회장 임예실)는 지난 11일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청결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후2동 주변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통장협의회 회원 및 인후2동 주민센터 직원은 관내 동북초등학교 및 견원왕궁로 일대 주변 통학로 중심

으로 인도, 가로수 및 경계석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임예실 통장협의회 회장은 “통학로 주변 정돈된 거리를 보니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최고의 ‘품질’ 최상의 ‘먹거리’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

TOP MARU

탑은 최고 의미의 TOP과 마루는산꼭대기 정상을 뜻 하는 순우리말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국보11호 미륵사지석탑을 빚어냈던 역사의 후예, 익산농업인들의 담대한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익산시조합운영협의회

농협익산시지부	지부장 이상우	익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병욱	오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채병덕	황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사식	삼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기배	서익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호순
금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백낙진	왕궁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조홍	여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우창	북익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득추	망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병남	성당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허정천
낭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학림 익산원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봉학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심재집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손선규											